

인터넷과 영어교육¹⁾

조 세 정

I. 머리말

현재 우리는 정보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정보통신의 물결이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관련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19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보다도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과 미국의 뉴욕 사이에 화상전화를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면 한 시간에 약 40 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인터넷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지 400원 밖에 들지 않는다. 또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공서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해서 발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에서 자체 컴퓨터 간의 연결로 시작된 컴퓨터 통신망(network)인 ARPANET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통신망으로 발전하여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ISCO(1995)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은 현재 세계 180여개 국가의 컴퓨터 통신망 들을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 중의 통신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대의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다. 현재 약 5000만 명 이상의 세계인들이 이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이용자 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통신망을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보 고속화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에게 닥친 정보의 압축혁명시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 그 중에서도 교육분야에 미칠 영향은 그 폭과 강도면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대학들이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을 인터넷 상에 개설하여 자신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학이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home page)를 개설하여 그 학교에 대한 소개, 학과, 교과과정, 교수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대학에서는 인터넷 상으로 입학지원자 들의 서류나 수강신청도 접수하고 있다. 또 인터넷은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이나 재택수업을 가능하게 하였

1)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다. 교육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좀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해줌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있는 것이다.

II. 인터넷상의 영어교육의 장점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조직망과 교육에 있어서의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해주는 인터넷이 외국어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교육에 대해 갖는 이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언어가 영어라는 점이다. 물론 요즘 각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체 사이트의 99% 이상이 영어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영어의 세계지배화가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지만 영어를 쓰지않고는 이용이 불가능한 인터넷을 영어교육의 도구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이상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은 영어교육에 있어서 원어민(native speaker)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라는 점이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가장 효과적인 영어교육은 원어민과의 직접접촉을 통하여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 학생 들로써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국내에서도 제한된 원어민 숫자 때문에 그들과의 직접 접촉이 용이하지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은 원어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공간을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줌으로써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은 영어 학습자에게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와 상대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가능케 해준다. 종래의 매체를 이용한 영어교육이 지니는 단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Ahmed(1985)등이 지적 하듯이 학습자와 매체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Audiolingual Method의 경우, 단순히 테이프를 듣고 이것을 반복하는 일방통행식(one-way flow)의 수동적인 방법이었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CALL(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의 경우에는 Audiolingual Method보다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상호작용이 키보드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상대가 살아있는 실물이 아니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하나, 인터넷 상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하여 주고 더 높은 동기유발을 시키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넷째, 인터넷은 영어 학습자에게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해준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PC 컴퓨터와 전화선만 갖추어져 있으면 아무곳에서, 아무때나 접속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무선 전화기에 모뎀을 설치하여 휴대용 PC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험중이며, 곧 실용화될 단계에 와 있다. 학습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지니는 큰 장점중의 하나로

써, 집에서 학교 수업을 받는 재택 수업,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의 교육을 가능케 해주
는 원격교육을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케 해준다.

다섯째, 인터넷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 사용권의 문화를 살아있는 그대로 전
달해 줄 수 있다. Schumann(1976)이 지적했듯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 문화를 배
우는 것이며, 목표 문화(target culture)의 이해 없이는 목표 언어(target language)의
성공적인 습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인터넷은 영어 사용권의 문화, 그들의
사고 방식, 가치관 등을 여과없이 살아있는 그대로 학습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종래
의 교실 위주의 학습이 지녔던 문화의 장벽을 제거 해주어, 영어의 학습을 더욱 용
이하게 해준다.

여섯째, 인터넷은 학습자들에게 강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터넷에
는 거의 모든 관심 분야를 다루는 집단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좀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종래의 방법에 의한 영어 수업시 교사가 원어민
이든 한국인이든간에 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쉽게 관찰된다.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한 이러한 소극성은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하
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인터넷은 외국인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도 물리적인 접촉이
아닌 가상 공간을 통한 접촉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지니는 이러한 심리적 장벽
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III. 현 인터넷 상에서의 영어교육 관련 서비스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인터넷 상의 각종 서비스 들이 어떻게 영어교
육에 이용되고있으며 또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전자우편(e-mail)

우리가 현재 인터넷 서비스 중 가장 보편화된 전자우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지
이것이 항공우편보다 훨씬 빠르게 편지를 전달해 주고 팩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영어교육을 위해서 전자우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
해 주고 있다.

첫째, 전자우편은 자신과 같은 관심분야를 가진 세계각국 사람들과 접촉을 용이
하게 해주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 List Server라 불리는 주소목록(mailing
address)이 거의 모든 분야에 사람들과 접촉을 가능케 해준다. 이것은 주소 목록 상에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전
세계 영어교사들을 위한 TESL-L이 좋은 예이다. 현재 전 세계에 약 9000명의 영어
교사들과 학생들이 가입해 있는 이 프로그램은 CALL, Material Writing, English
Learning Program, English on Special Purposes, 영어교습법 등 영어 교육 분야의
전반에 걸친 토론의 광장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른 흥미로운 영어교육 관련 주소목록

을 살펴보면 제2외국어 습득연구 및 교육분야의 SLART-L, 언어, 언어학분야의 토픽이나 논문발표 등을 다루는 LINGUIST가 있고 이 외에도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수많은 목록들이 있다.

둘째, 전자우편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원격교육을 가능케 해준다. 한가지 좋은 예로 미국의 North Carolina 대학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부쿠레스트의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주는 상대방을 제공해 줌으로써 좀더 강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교육의 장을 전통적인 교실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확장시켜 준다. 학생들이 전자우편을 능숙하게 쓰기 위해서 영어로 다양한 작문 기술을 익혀야 한다. 실제로 Mark Warschaver(1995)는 그의 최근 저서에서 자신이 전자우편을 이용해 영어수업을 해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실험분석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

유용한 전자우편 List Server들은 다음과 같다.

- *listserv@cunyvm.cuny.edu
- *Mailing lists of branches of TESL-L
 - TESLCA-L (CALL list)
 - TESLFF-L ("Fluency First"/Whole Language)
 - TESLIE-L (Intensive English Programs)
 - TESLIT-L (Adult Education and Literacy)
 - TESLJB-L (Jobs/Employment/Working Conditions)
 - TESLMW-L (Material Writers)
 - TESP-L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2. 유스넷 그룹(Usenet News Group)

인터넷의 또다른 서비스 중의 하나인 유스넷을 접속하면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초에서 고급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뉴스그룹들이 있어서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고 관심있는 분야의 토론그룹에 참여하여 영어를 실습하며 익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거의 모든 관심분야의 뉴스그룹들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의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종래의 교과서나 교실수업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좀더 흥미있고 다양한 형태의 영어학습을 할 수 있다. 환경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은 환경 관련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컴퓨터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은 컴퓨터 분야 그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언어적인 면 이외에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면까지 결합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뉴스넷을 영어학습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인터넷 상의 모든 서비스가 그러하듯이 문어체 보다는 구어체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듣기에 생소한 구어적인 표현들이 교실 수업에서 논의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유스넷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 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접해서 친숙해지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유용한 유스넷 그룹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bit.listserv.tesl-l: TESL-L mailing list
- *bit.listserv.slart-l: SLART-L mailing list
- *bit.listserv.linguist: Linguist mailing list
- *misc.education.language.english: English Education Discussion
- *k12.lang.english: K-12 English Education discussion
- *alt.usaga.english: Discussion of English Grammar and Syntax
- *sci.lang.english: English Linguistics

3. 인터넷 채팅(IRC, MUD, MOO)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또다른 서비스로서 우리가 영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IRC(Inter Relay Chat), MUD's(Multi-User Domains)와 MOO's(MUD Object-Oriented)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이들이 전자우편과는 달리 동시에(realtime) 의사소통이 된다는 점이다. 전자우편의 경우 내가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시차를 두고 그 편지를 보고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고 나 또한 시차를 두고 그것을 받아 보게 된다. 하나, IRC나 MUD에서는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동시에 내 컴퓨터에 올라오므로 나 또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이 영어로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줌으로써 영어를 순발력있게 실습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도구들은 모두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공간이며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참가자들은 그 안에서 마음대로 옮겨다니며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울릴 수 있다. 또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전시물(object)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는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2개의 교육용 가상공간(cyber space)이 있는데 DUELI(Diversity University English Language Institute)와 Schmooze University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지도'를 명령하면 가상캠퍼스의 지도가 나와 가고 싶은 곳에 찾아갈 수 있으며 각기 장소마다 그곳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며 다른 참가자들도 처음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물론 DUELI이나 Schmooze와 같은 가상의 학교들은 몇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이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에 대한 회의감을 버려야 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육성에 의한 것이 아닌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타이핑에 익숙치 못한 학생들은 그만큼 반응속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상대방에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타이핑이 빠른 학생에 의해 수업이 주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 가상의 공간들이 실제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는 공간이므로 상대방에 대해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때때로 전송이 중단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참가 학생들이 싫증을 낼 수도 있다.

유용한 MOO의 주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Telnet to:

*arthur.rutgers.edu:8888: (SchMOOze University , a place of virtual learning for students of English)

*erau.db.erau.edu:8888: (Diversity University, a virtual college)

4. 월드와이드웹 (WWW, World Wide Web)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 꽃 중의 꽃으로 불리우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최근 1,2년 사이에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요즘에는 인터넷과 거의 동의어가 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원동력은 종래의 인터넷 서비스가 주로 텍스트 파일만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월드와이드웹 상에서는 텍스트파일, 그림파일,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등이 모두 처리될 수 있어 진정한 멀티미디어(multimedia) 환경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드와이드웹에서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 불리우는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와 연결(link)을 시켜놓고 있다. 연결된 페이지에는 텍스트, 그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모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이퍼미디어(hypermedia)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ESL과에서 만든 영어회화 교육용 사이트를 보면 각 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선택하면 그 문장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려 준다. 이러한 하이퍼미디어를 가능케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며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이 언어를 정규과정의 일부로 채택하여 학생들이 자기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게 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에서는 이 뿐만이 아니라 파일송수신(FTP), 유스넷, 고퍼(Gopher), 전자우편 등 다른 인터넷 상의 서비스와도 직접 접속이 가능하여

인터넷 상의 모든 서비스가 월드와이드웹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며 다른 인터넷 상의 서비스도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이 영어교육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실로 무한하다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자료들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고 그림이나 비디오로 볼 수도 있으며 상대와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영어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현재 월드와이드웹 상에는 영어의 읽기, 쓰기 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이미 서비스 중이며, 그 숫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읽기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우화에서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학작품 거의 모든 유명잡지 등이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들이나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들은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읽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답한 것에 대해 즉석에서 정답 및 점수를 알려 주는 게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다.

유용한 읽기 분야의 월드와이드웹 상의 주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 *<http://ipl.sils.umich.edu> (IPL The Internet Public Library)
- *<http://www.cochran.com/tt.html> (Theodore Tugboat)
- *<http://the-tech.mit.edu/Shakespeare/work.html> (Shakespeare's works)
- *<http://www.comenius.com/fable/complete.html> (The Fluency Through Fable)
- *<http://www.ed.uiuc.edu/impact/> (Impact! on-line home page)
- *<http://cs.cmu.edu/Web/books.html> (The On-line Books Page)

쓰기 분야에서는 영어로 글을 쓰는 데 흔히 범하기 쉬운 문법적 오류를 주로 다루는 것로부터 자기 전문 분야의 글을 학술적으로 설득력있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적인 쓰기 연구실(writing lab)형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Purdue대학교의 온라인 쓰기 연구실이 좋은 예로서 다양한 분야의 문서작성시에 필요한 문법 사항이나 표현 등을 상세하게 해설을 곁들여 설명해주고 있다. 또, Lydbury English Center에서 운영하는 The English Grammar Clinic에서는 학습자가 범하기 쉬운 문법적 오류에 대해 문답식으로 상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유용한 쓰기 분야의 주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 *<http://www.coe.uncc.edu/~bramattin/adds.html> (FLTI Charlotte's English Aids)
- *<http://webserver.maclab.comp.uvic.ca/writersguide/> (The UVic Writer's Guide)
- *<http://www.cc.columbia.edu/acis/bartlebg/Strunk/index.html> (The Elements of Style)

- *<http://owl.trc.purdue.edu/> (Purdue On-Line Writing Lab Web Server Home Page)
- *<http://english.ttu.edu/acw/> (The Alliance for Computers and Writing)

듣기 분야에서는 대다수의 영어 회화용 사이트들은 모두 하이퍼미디어로 텍스트와 음성파일을 연결시켜 놓아서 학습자들은 직접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화공부를 할 수가 있다. 좋은 예로 미국 Illinois주립대의 ESL과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이 중 듣기 말하기 분야의 것은 어느 특정한 상황 하에서 쓰이는 다양한 구어적 표현들을 직접 듣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밖에도 오디오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있는 Real Audio company와 매일같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에 영어 뉴스를 들려 주는 사이트도 있다. 듣기 분야의 유용한 주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 *<http://www.realaudio.com/> (The Home of Real Audio)
- *http://www.indiana.edu/~eric_rec/fl/ras.html (Paraents and Children Together)
- *<http://traviang.um/languages/> (Foreign Languages for Travelers)
- *<http://www.hcc.hawaii.edu/dinos/dinos.1.html> (Dinosaurs expained in English)
- *<http://www.ed.uiuc.edu/Edpsy-387/Rongchang-li/eslproject/eslbeg.html> (UIUC's ESL Program)

이 외에도 월드와이드웹 상에는 모르는 영어 단어나 표현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사전 들도 많이 있으며, 어휘력을 기를 수 있는 사이트 들도 있고,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며, 영어교사와 학생 들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영어교육용 사이트 등 실로 영어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자료 들이 총망라되어있다. 이들 중 유용한 사이트의 주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Dictionary

- *<http://meta.stanford.edu/CGI/webster> (Webster Gateway)
- *<http://www.pf.eb.com/> (Welcome to Britannica Online)
- *<http://titania.cobuild.collins.co.uk/wordwatch.html> (WORDWATCH introduction)

Vocabulary

- *<http://www.wordsmith.org/wad/home.html> (A Word A Day Home Page)
- *<http://www.c3.lanl.gov/> (CIC-3 Main)
- *<http://www.users.interport.net/~words1/> (The Word Detective)

Grammar

- *<http://deil.uiuc.edu/web/pages/grammars> (The LinguaCenter Grammar Safari)
- *<http://www.hiway.co.uk/~ei/intro.html> (An Elementary Grammar)
- *<http://www.edunet.com/english/grammar/index.html> (On-line English Grammar)

ESL Sites

- *<http://www.ed.uiuc.edu/exchange/> (Exchange)
- *<http://www.pacificnet.net/~sperling/eslcafe.html> (Dave's ESL Cafe On The Web)
- *<http://www.mcli.dist.maricopa.edu/proj/lee.html> (Learning English Electronically)
- *<http://www.educ.wsu.edu/esl/esl.html> (ESL Home Page)

III. 향후 전망과 문제점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은 아직도 그 발전 초기단계이다. 현재 인터넷에 대해 여러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 보도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개인은 아직 그리 많은 수자가 아니다. 우선, 개인적 비용에 문제가 있다.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는 고성능 PC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에의 가입비, 매월 사용료, 그리고 사용 시간만큼의 전화요금 등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그 대상이 영어 학습을 하는 학생층이라면 그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온갖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만든 정보 교류광장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바로 이 이점이 학생들에게 교육상 역기능을 주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음란물의 여과없는 유입을 들 수 있다. 음란한 사진이나 비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망라한 사이버섹스(cybersex)가 최근에 등장하여 자유분방한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결국 음란물의 인터넷 유입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문화적인 차이에 학생들이 여과장치없이 직접 노출이 됨으로써 오는 피해에 대하여 아직 우리나라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천년까지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초고속국가정보망을 전국의 대학, 도서관, 연구소는 물론 초.중.고등 모든 학교에 연결시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정보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학생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와 통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각급 학교 교사들이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형편이다. 교사는 인터넷 지식(knowhow)만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화시대에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정보 중에서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보의 소재(knowwhere)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knowwhat)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관련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새로운 미디어 출현에 따른 지나친 낙관론이나 흥분은 금물이다. 과거에도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나머지, 실패를 맛보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Audioligual

Method가 그 좋은 예이다. 이 방법이 등장하고 각급 학교에서 audio lab 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오늘날 그 평가는 당초 기대에 훨씬 뒤진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던 CALL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분별없는 낙관론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다.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분야의 학자, 교사 등이 인터넷 상의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이 자료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아직 그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어민 수준에 접근하는 영어를 구사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어 교육 분야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은 어차피 거세게 밀어닥치는 정보화의 물결과 함께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 생활의 상당 부분을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은 그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심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어차피 가까운 장래에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것을 잘 활용하여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 인터넷은 종래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며 익히던 양식에 큰 변화를 줄 것이며, 영어교육의 교과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매우 귀중한 교육매체로 발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hmed, Khurshid, G. Corbett, M. Rogers & R. Sussx. 1985. *Computers,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 Press.
- ISOC Statistics. 1995. <http://www.netgen.com/infoarea/growth.html>
- Schumann, John H. 1976.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pidginization hypothesis. *Language Learning* 26:391-408.
- Warschauer, Mark. 1995. *E-mail for English Teaching: Bringing the Internet and Computer Learning Networks Into the Language Classroom*. TESOL: Virginia, USA